

Thematic Radar

Ep. 30 의약품 관세가 자극하는 인프라 수요

-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재고를 확충하는 한편 대규모 생산 시설 투자를 발표
- 감세안 통과로 미국내 생산 시설 관련 세금 부담도 저하. 첫해에 관련 구매내역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관세와 세액 공제 혜택으로 인해 생산 시설 투자 늘어나며 인프라 장비 수요 증가 기대. PAVE ETF로 접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상향에 이어 섹터별 관세도 강화할 테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로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예고하고, 의약품 수입에 대해서는 높게는 200%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재고 축적에 나서는 한편 미국내 생산 시설을 확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관세는 1년~1년반 후에 적용될 예정으로, 미국 시장용 생산 시설이 설립될 때까지 재고를 최대한 축적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다수의 미국 제약사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아일랜드에 생산 기지를 뒀는데, 관세에 대비해 수입을 늘리면서 올해 미국이 아일랜드(-770억달러)와 기록한 무역 적자 규모는 중국, 멕시코 다음으로 컸다. 24년 동기간(-322억달러)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액수다.

미국내 생산 시설 관련해서는 다수의 대규모 투자가 발표됐다. 일라이 릴리는 270억달러 투자를 선언했고, 로슈도 미국 생산 시설과 R&D에 500억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생산 시설 투자 결정에는 관세 위협도 작용했지만 7월초에 통과된 감세안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들의 감가상각 즉시 공제(100% bonus deduction)가 가능해지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생산 시설 설립에 필요한 장비를 수년에 걸쳐 비용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첫해에 관련 장비 구입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최종 과세 대상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완공만 하면 된다. 여기에 기업들의 R&D 비용도 전액 공제된다.

신규 생산 시설 투자는 제약 기업들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농기계 기업 Deere는 200억달러, Kraft-Heinz와 Carrier도 각각 30억과 10억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 투자를 발표했다. 미국 인프라 관련 기업에 긍정적인 흐름이다. 인프라 수요 증가는 건설에 필요한 각종 산업 및 안전 장비를 공급하는 Fastenal(패스날)의 2Q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2Q 평균 일간 매출은 전년대비 8.6% 증가했고, 중공업 제조, 기타 제조업 관련 분야의 매출은 각각 7.5%, 11.5% 상승했다. 24년 이후 매출 상승폭이 늘어나는 중이다. 관세와 세액 공제 혜택의 조합으로 인프라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패스날을 비롯해 다수의 미국 인프라 기업들을 보유한 PAVE ETF에 대한 관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림 1. 트럼프 취임후 발표된 제약사들의 투자(십억달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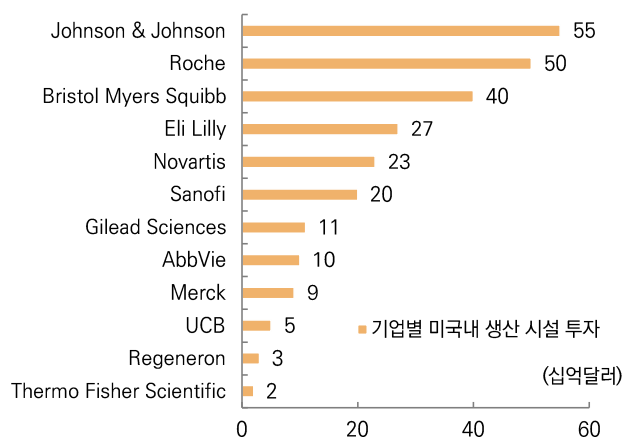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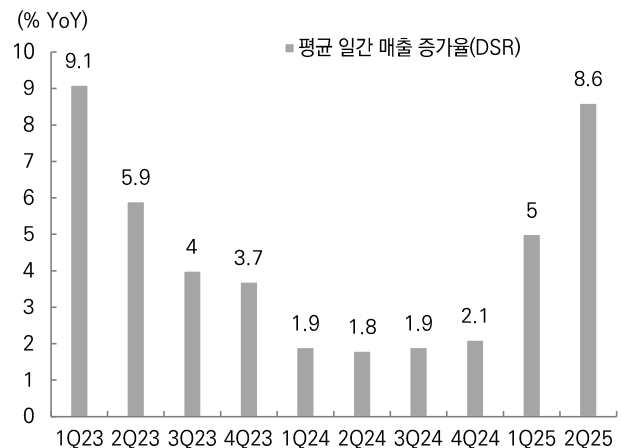


그림 2. Fastenal의 일간 매출 증가율 추이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